



### 조선대병원 '제1회 의료 메타버스 심포지엄'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김경중)은 지난 19일 병원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제1회 의료 메타버스 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1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2023 광주 스마트 의료 혁신: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현대 의료 산업에서 메타버스의 부상과 그에 따른 변화,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중 병원장을 비롯한 보건의료 산업 종사자, 관광 산업종사자, 사·도 해외의료 담당자, 유치사업 관계자, 메타버스 관심 기업 및 관련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김경중 병원장은 "앞으로도 메타버스를 다각적으로 활용해 스마트병원을 구현해 나가고 전 세계 환자와 소통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성과분석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법무보호대상자 맞춤 서비스 및 취업지원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단·교정·보호관찰·소년원·도로교통공단 5자 성과분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공단 유관기관인 교정기관(광주·목포·해남·장흥), 보호관찰소(광주·목포·해남), 광주소년원,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고용협력기업체 대표, 대성축산유통 안병열 대표, (유)보성이노텍 김종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취업조건부 가석방제도 △도로교통공단 업무협약 이행사항 △소년 대상 취업 활성화 방안 등 하반기 취업지원 성과를 분석했으며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 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은 "공단, 교정, 보호관찰, 소년원, 도로교통공단 애로사항과 대응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간재 기자



### 광주여대 도서관, MAUM 나눔도서 전달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도서관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금성원(나주시 금천면 소재)에 2023학년도 MAUM 나눔 도서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MAUM 나눔 도서 전달은 지역사회에 MAUM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행사로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아동에게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도은영 광주여대 도서관장은 "MAUM 나눔 도서 전달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마음 나눔과 대학의 공동체 임무를 수행하는데 보탬이 됐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마음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 KT&G 상상유니브 전남-호남대 MOU

KT&G 상상유니브 전남운영사무국(국장 윤광식)이 지난 20일 지역 대학생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호남대학교 LINC사업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내국인 대학생 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고용한(미디어영상콘텐츠학과) 호남대학교 LINC 사업단장은 "협업체계 강화로 예술분야 지역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양질의 프로그램 기획으로 지역 문화콘텐츠 활성화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상유니브는 청년의 상상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는 KT&G의 독창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배움과 성장,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 스스로 문화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생 커뮤니티로 활동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 동신대-베트남·한국기업인 및 투자협 협약

동신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단(단장 이동휘 교수)은 지난 20일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 2층 대강당에서 베트남-한국 기업인 및 투자 협회(VKBIA)와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두 기관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공동 개발 △창업 기술 개발을 위한 정보 및 자료 공유 △예비창업자 발굴과 창업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 화순전남대병원 전수빈, 우수 연구학술상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핵의학과 전수빈(사진) 팀원이 최근 개최된 제62차 대한핵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및 제22차 아시아핵의학협력기구(ARCCNM) 학술대회에서 NMMI 우수 연구학술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팀원은 '갑상선유두암 환자에서 방사성요오드 치료용량 결정을 위한 갑상선글로불린 역할 재정립: 후향적 다기관 연구(Thyroglobulin-Based Risk Factor Repositioning for Determining Radioactive Iodine Activity in Patients with Papillary Thyroid Carcinoma: a Multicenter Retrospective Cohort Study)' 논문을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논문은 갑상선유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혈청 갑상선글로불린 수치에 따라 치료 반응을 평가한 연구이며, 전국 25개 기관이 참여한 다기관 임상 연구 결과다.

전 팀원은 "앞으로도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관리하며, 진료와 연구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기자



### 엑소 세훈,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한류 그룹 '엑소(EXO)' 막내 세훈(사진)이 팀에서 마지막으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다고 밝혔다.

2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세훈은 이날부터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한다.

훈련소 입소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SM은 "조용히 입소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구체적인 장소 및 시간은 공개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세훈은 앞서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요즘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살피며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다"면서 "그렇다 보니 여러분께 얼굴을 비추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 직접 인사드리지 못하고 다녀오는 저를 조금이나마 이해 해주셨으면 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현재 엑소 여덟 멤버 중 여섯 멤버가



군 복무를 끝냈고, 지난 5월부터 카이가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세훈은 엑소 멤버들과 2012년 데뷔했

으며 엑소는 '으르렁' '중독' 등의 히트곡을 내며 한류를 이끌었다. 세훈은 엑소 멤버 찬열과 함께 '세훈&찬열'로 유닛활동도 하고 연기, 예능 활동도 했다.

최근 엑소가 10년 전인 2013년 12월 발매한 겨울 스페셜 앨범 '12월의 기적' 수록곡 '첫눈'이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일간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이 팀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말 톱타 황세훈이 시작한 '첫눈 챌린지' 덕인데 세훈도 여기에 동참했다. 엑소 곡이 멜론 일간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으르렁' (2013)과 '12월의 기적'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주영 기자

### 이문세, 5년 반 만에 정규 17집 낸다

가수 이문세(사진)가 약 5년 반 만에 정규 음반을 낸다고 밝혔다.

21일 소속사 케이문토프엔디에 따르면, 이문세는 내년 상반기 중 정규 17집을 발매한다. 이문세가 정규 음반을 내놓는 건 2018년 10월 정규 16집 '비트윈 어스(Between Us)'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후 6시 정규 17집 수록곡 중 하나인 '웜 이즈 베테 더 핫(Warm is better than hot)'를 선공개하며 재즈 클럽에 앉아 여유롭게 노래를 듣는 듯 약기들의 리얼한 연주가 돋보이는 블루스 스타일의 곡이다. 리드미컬한 브라스 편곡과 이문세의 여유로운 보컬이 더해졌다.

노래 가사는 '뜨거운 것도 좋지만, 따뜻한 온기도 좋다', '설렘이 아닌 편안함' 등의 내용으로 채워지며 케이문토프엔디는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주



는 위로이자 익숙한 사람들을 한번 더 돌아보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작곡가 헨과 함께 작업했으며, 헨은 '남자친구' '나의 해방일지' '멜로가 체질' 등 드라마 OST를 작업하고 최근 싱어송라이터 박지윤과 작업으로 주목받았다.

이문세는 '웜 이즈 베테 더 핫'을 시작으로 정규 17집 수록곡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문세는 현재 새 앨범 작업과 함께 자신의 콘서트 브랜드 '시어터 이문세'의 새로운 버전 준비도 한창이다. 새로운 버전의 '2024 시어터 이문세'는 내년 3월 8일 전주에서 출발하는 새 투어에서 만날 수 있다. 이주영 기자

### 지드래곤, 마약퇴치 재단 설립... '미래 세대' 양성도

한류그룹 '빅뱅' 멤버 겸 솔로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사진)이 마약 투약과 관련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었다는 입장을 냈다.

지드래곤 새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 조성에 CESGO(최고ESG책임자)는 21일 서울 반포동 호텔에서 "권지용 씨와 마약 관련해 어떤 혐의도 연관 없음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 CESGO는 "권지용 씨는 그동안 많은 추측과 왜곡된 소문들로 인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날 공식 입장 보도를 마지막으로 아티스트로 복귀할 수 있도록, 무고했던 사람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에게 마약 사건 관련 연관 보도가 없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내년 상반기 새 앨범을 발매할 예정인 지드래곤은 향후 아티스트 본인 일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공익 활동 등 새로운 계획을 준비 중이라면서 자신을 믿어준 분들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공익 활동은 마약 퇴치·근절과 관련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불참한 지드래곤은 갤럭시 코퍼레이션 오희영 이사가 대독한 편지에서 마약·불평등·불



공정을 퇴치·근절하는 재단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후배 양성 등의 목적도 있다.

지드래곤은 이번 연에게 마약 사건에 뜻하지 않게 휘말린 뒤 뉴스를 보며 "한 해 평균 마약사범이 2만 1명에 달한다는 사실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무섭게 증가했다는 사실 이들 중 치료 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만여명 중에 500명도 되지 않는 어린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저는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래서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 무섭고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 마약을 퇴치 근절하기 위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치료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나누고자 한다. 또 힘이 없고 약한 존재들이 겪게 되는 억울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이들의 옆에서 서서 누군가의 오판로 형으로 동생으로 또 동료로 그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적 역할을 하고 싶다. 이 활동을 진심으로 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